

«하나님! 나의 하나님» 세탁소의 하루

(시카고 산울교우 이민선 권사)

철남매 중 제일 게으르고
 귀족 연습 좋아하던 내가
 미국 와서 십사 년 만에
 부러워하는 직장 헌신짝같이 버린
 공부 밖에 해본 게 없는
 철없는 남편과 함께

어느덧 강산
 두 번쯤 변할 세월 지나고보니
 너무 많이 너무 힘들게 일했어도
 남보다 잘 웃는 우리 두사람
 주님 함께 하신 증거
 쉽게는 못살아도 주님은 더 가까이

생활 전선위해
 막노동들
 멋도 모르고 시작했다
 대한민국 최고 학부 나온 우리들이
 정말 아무 상관 없는 일을 하더니
 겁나고도 눈물나와

아이들 넷은 이걸로 밥먹고 자라
 다 떠나버렸네
 기도 하며 키운 아이들
 우리 고생 반쯤은 씻어주고
 힘든 일 그만두라 성화 시작하니
 이젠 남의 부러움도 살지 모르지

남 다하는 일 우리라고 못하랴 시작했지만
 백번도 후회하고 도망가고 싶었지
 서당개 십년에 겨우 글은 읽은 셈이지만
 서투르고 서투른 일 지금까지 그 타령
 산더미 일 한숨으로 불어내며
 남 돈벌 때 고생만 벌었지

이제껏 버텨온 것
 내가 생각해도 장한 일
 고생한 것만큼
 인생의 깊이 알 수 있다면
 버린 것만큼 얻는 것도 있다면
 지난 세월 헛되지 않으리니
 바보같이 살았다 웃지 말자
 주님 함께 하시니

여름엔 지옥보다 덜 뜨거울 것이라고
 맘을 비오듯 훑쳐내며 위로하고
 겨울엔 난방비 아낀다고 추워 떨며 재봉질
 해도 해도 끝 없는 일 막막한 때도
 악물고 정신차려 바보같이 살았다

오늘도 힘내는 세탁소의 하루
 드높이 노래하며 감사로 바꾸는 하루

(2003년 9월 27일)



«그뻐 그랬지» "부라더 미싱"
 "♪ 사랑스런 부라더, 꽃~님이 시집갈 때 부라더 미싱♪"
 '미싱'이라고 부르던 재봉틀이 혼수품이던 시절, 아이
 들은 목적하고 검었던 발들을 밟으면 올라갔다 내려
 왔다하는 느낌이 좋아 엄마 몰래 밟고 놀았습니다. 처
 음에 잘못 시작하면 둥근 바퀴가 거꾸로 돌기도 하였
 죠. 한 손으로는 돌리고 한 손으로는 바느질하던 얇은
 뱅이 미싱을 다루던 어머니들의 솜씨는 신기에 가까웠
 습니다. "부라더"란 뜻이 Brother였음을 중학생이 되
 서야 알았습니다.
 요강을 안고 갔다는 옛날만큼이나 미싱을 갖고 시집
 갔던 그 때의 소박했던 세상살이가 새삼 그립습니다.

교회목표 하나님만이 살과 교회의 주인	'2004년 교회생활'비보 같은 교회 갈보리 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성김과 봉사 *익명성 -영예
제6권 6 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4년 2월 8일
☎520-9464. 369-5077. 71 Khyber Pass Rd.(The Church of Holy Sepulchre) calvary.ca.to		

어느 장로님 이야기

박명철(기독교 사상 기자)



새 아파트로 이사한 임 장로님 맥을 찾았습니다. 전에 사시던
 아파트가 철거되면서 옮긴 집입니다. 낡고 좁은 그 전의 아파
 트에 비하여 화려한 분위기였습니다. 동거하는 따님이 장만한
 아파트라고 합니다.

장로님 부부에게 화려한 아파트는 어색하기도 하고 잘 어울리
 기도 하였습니다. 검소하고 부지런한 장로님이기에 그런 분위
 기가 어색하다면, 화려함을 사치하지 않으리라 믿기에 잘 어울
 렸습니다.

장로님은 시간이 나면 아파트의 주차관리를 하시고, 토요일에는 약수터에서 물을
 길어 교회 식당에 두어 주일을 준비하셨습니다. 일흔여섯의 연세지만 장로님은 아
 직 자가용 기사로 일을 하십니다. 수십 년째 같은 분의 차를 운전하고 계시는 셈입
 니다.

아이를 만나든 노인을 만나든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장로님의 행동거지는 과장되지
 않으면서도 경쾌합니다. 대표기도를 하실 때면 완연한 평안도 사투리로 이복에서
 주님을 찬송할 수 없는 형제자매들에게 위로를 주시도록 구합니다.

젊은이들에게 장로님의 '대북관'이나 '통일관'은 고리타분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힘겨운 시대를 살아오시면서 겪었을 수많은 풍상이 떠올라 오히려 숙연해집니다.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장로님은 자리를 정돈합니다. 뒷자리에 앉은 사람들에게 나
 중에 올 사람들을 위해서 앞자리로 옮기자고 합니다. 이런 장로님의 권유에 언짢아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거짓 없는 장로님인 까닭입니다.

세련되거나, 요령이 많거나, 언변이 뛰어나거나, 외모가 출중한 사람들... 장로님
 은 이런 코드에 맞지 않는 분입니다. 촌스럽고, 키 작고, 어눌하고, 우직합니다.
 첫눈에 와 닿는 분이기보다 오래 보아서 진가를 확인해야 할 분입니다. 오래 되었
 지만 소중한 삶의 지혜들을 많이 가지신 분입니다. 누룽지 같고 가마솥 같은 분입
 니다.

«남편 기 살리는 말»
 "나는 복받은 여자예요!"
«남편 기 죽이는 말(절대 해선 안될 말)»
 "그 때 내가 속았지!"

«아내 기 살리는 말»
 "당신은 나한테 너무 과분해!"
«아내 기 죽이는 말(절대 해선 안될 말)»
 "내가 눈이 빼었었지!"

주 일 예 배

(* 표에 일어서시기 어려운 분은 앉으셔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영광송 Gloria	"Calvary"	다 같이
참회의 기도 Confession Pray		
용서의 선언 Proclaim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인 도 자
*찬 송 Hymn	25장	다 같이
*성 시 교 독 Response Reading	35 (이사야 35)	
*신 앙 고 백 Apostle's Creed	사 도 신 경	
교 회 소 식 Welcome & Announcements		
어 린 이 시 간 Sunday School		주일학교
찬 송 Hymn	434장	다 같이
기 도 Prayer		지찬영 권사
성 경 봉 독 Scripture Reading	요한계시록 2:8-11	인 도 자
성 가 대 찬 양 Choir		나무십자가성가대
설 교 Sermon	가난하나 부유한 믿음: 서머나교회	김성국 목사
찬 송 Hymn	383장	다 같이
헌 금 기 도 Offering Pray		인 도 자
응 답 송 Response Song	'이 믿을 더욱 굳세라' (1절: 다같이)	다 같이
축 도 Benediction		김성국 목사

(예배를 마치고서 Hall에서 Tea Time을 갖습니다)

◆2월의 예배위원◆

일자	주일기도	헌금위원	가족찬송	Tea Time	주방봉사
1	정희자	김진근	이종인 현순진	최원영 최장한	
8	지찬영	김정애		최재학 최현철	1구역
15	최재학	김현자	백재성 장유진	현석호 경덕현	2구역
22	현석호	마경춘	김수찬 윤영전	고성일 권용일	3구역
29	김교섭	박병민		권정호 김경구	4구역

'2004년 교회표어
"바보같은 교회"(창6:22)
*말씀대로 살면 손해본다. 그래도 살아본다
*누구나 평등하다. 그래도 아버지를 높인다

*3주간 예배, 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자격이 주어집니다
*여러교회를 다녀 보신후 결정
하셔야 바른 판단이 됩니다

주일예배: 낮 12시 | 수요일예배: 저녁 7:30 | 아동, 학생부: 주일 낮 12시 | 청년부: 토 저녁 7시

1. 교우소식

<출산> 이종인 집사, 현순진 성도. 첫 딸 순산. 축하드립니다.

<방문 후 귀국> 고성일, 김봉희 집사 가정.

<이사> 권정호, 강현정 성도 ☎ 416-8050 ☒ 14Tornado Pl. West Harbour

<정신과 상담실 운영> 한정옥 집사(정신과 전문의). 매주 목. 예약필수(575-7456)

2. 믿음의 어머니 기도회: <일시> 9일(월) 오후 1시 교회

*모두의 어머니 같은 여성교우들의 기도모임입니다. 필요한 기도제목을 부탁드립니다 (담당: 정희자 권사, 혹은 권사님들께)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지만 "구하라" 하셨습니다. 한번 더 만나고 싶어 나오라는 부모님의 심정 같은 하나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3. "부활절 봉헌 영어성경 쓰기"(신청서 사용)

*부활로 우리의 생명을 주신 주님께 이번 부활절에는 영어성경말씀을 손으로 써서 드리겠습니다. 우리교회는 절기를 헌금으로 드리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 좋은 날 모른 척 하고 지나가면 억지로 드리는 것 보다 더 서운해하실 겁니다. 작년처럼 그 어느 것 보다 우리의 정성이 담긴 부활헌물이 될 것입니다.

4. "은빛 십자가 성가대" : 다음주일(15일) 제1여선교회

*매달 셋째 주일은 "나무십자가성가대"는 '안식주일'이면서 각 선교회에서 "은빛 십자가 성가대"를 구성하여 찬양 드리겠습니다

<3월> 첫째주일(7): 제1 남선교회

*가능한 지휘, 솔로는 자체 선교회에서 구성바랍니다. 반주는 필요시 요청.

*화성학적으로 잘하기보다는 회원끼리 마음이 모여져 기쁘게 연습하며 찬양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가끔씩 불협화음이 나오더라도 하나님께서도 그 마음을 아시기에 흐뭇해하실 것입니다

5. 주방봉사: Tea Time 후 설거지와 정리를 구역별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 수요일예배 <매주 수요일> 저녁 7:30

*주일 한번의 말씀 가지고는 일주일을 세상에서 힘쓰기에 조금 약할 것 같습니다. 레위기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는 수요일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착한 시인들▶ 키

유 안 진

부끄럽게도
여태껏 나는
자신만을 위하여 울어왔습니다.
아직도
가장 아픈 속울음은
언제나 나 자신을 위하여
터져 나오니
얼마나 더 나이 먹어야
마음은 자라고
마음의 키가 얼마나 자라야
남의 뉘든 울게 될까요.

교회 문 계단을 청소하며 누가 먹다 버린 닭 뼈를 주워 담습니다. 자기 몸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살을 먹어야 하는 게 먹이사슬의 이치라지만 웬지 서글펐습니다.

알고 보면 야수보다 무서운 게 사람이면서 꽃보다 아름다운 것이 그 또한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남의 뉘을 위해 자기 뉘을 희생할 때야 비로소 그럴 겁니다.